

결핵 늘고 홍역까지...전남도 감염병 비상

지난해 결핵 51명 전국 최다
결핵 사망자 전국평균 1.7배
지난해말 백일해 환자도 발생
설 명절 대이동 확산 우려

전남도가 감염병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결핵 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데다, 전염성이 강한 백일해에 이어 홍역 환자까지 발생하면서이다.

이는 노인 인구가 많아 결핵환자가 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해외 여행 등으로 인해 외국에서 홍역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결핵 전수검진 결과, 51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차 검진이 요구되는 유소견자는 1318명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무안군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해남 각 5명, 광양·구례·고흥 각 4명, 목포·여수 각 3명, 화순·함평·영광 각 2명씩 발생했다. 순천과 강진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각각 1명씩 확진 판정됐다.

2017년에는 이보다 많은 1503명이 결핵환자로 신고됐다. 이는 10만명당 결핵 환자수가 79.6명으로 전국 평균 55명보다 1.4배가 많은 전국 1위다.

강원(75.8명)·경북(73.9)·충남(65)·제주(59)·전북(55.5)·경남(55.2)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는 48.2명이었다.

결핵 사망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17년 전남 결핵 사망자는 112명으로, 10만명당 사망자가 5.9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7배 높은 수치다. 결핵 사망자의 93%(104명)가 노인이었다.

전남도는 결핵 사망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홀로 사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결핵은 면역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혼자 사는 노인은 부실한 음식물 섭취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발생한다”며 “특히 결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탓에 폐 호흡이 곤란할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아 노인 사망률이 높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홍역 환자가 1명 발생했다.

최근 신안군에 거주하는 30대 필리핀 이주 여성이 필리핀에 다녀온 뒤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는 전염성이 강한 홍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 여성과 접촉한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 여행객 이용객, 비행기 탑승객 등 220명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퇴치국가로 인정받았지만, 해외 유입으로 해마다 홍역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대구 32명, 경기 22명, 경남 15명, 서울·충남·경북 각각 6명 등 홍역 의심 환자가 100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설 명절 대이동에 따른 확산도 우려된다.

지난해 말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는 2군 감염병인 백일해가 집단 발생했다. 백일해 증상이 나타난 학생 81명 중 7명이 확진 판정됐다.

2016년과 2017년 전국적으로 각각 129명, 315명 백일해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전남에서는 1명도 없었는데, 지난해 말 급격하게 늘어났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7
해질 17:52
달돋이 21:29
달질 09:53

아침기온 영하권

대체로 맑겠으며 대기 매우 건조한 곳 있겠다.

광주	맑음	-4/9	보성	맑음	-5/9
목포	맑음	-2/6	순천	맑음	-2/11
여수	맑음	0/9	영광	맑음	-5/5
나주	맑음	-6/8	진도	맑음	-2/6
완도	맑음	0/9	전주	맑음	-5/6
구례	맑음	-6/9	군산	맑음	-5/5
강진	맑음	-3/9	남원	맑음	-7/8
해남	맑음	-6/7	흑산도	맑음	3/6
장성	맑음	-6/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면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면바다(서)	북서~북	1.0~1.5	북서~북	1.0~1.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28	04:13
	22:02	16:55
여수	05:04	11:35
	17:35	23:49

◇주간 날씨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4/7	-4/3	-5/7	0/7	-3/8	-2/7	1/8

◇생활지수

	높음
	매우 높음
	보통
	낮음

미세먼지 저감위해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

서해 하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험이 진행된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 지 분석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경기 남서부 지역 및 인근 서해상에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한 뒤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

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다. 올해 인공강우 실험은 15회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실험에는 항공기, 선박, 이동 관측 차량, 도시 대기 측정망 등 다양한 장비가 활용되며 기상 여건과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한 뒤 실험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계획이다.

이번 실험의 결과 중 기상 분야는 실험 다음 날인 26일 발표한 뒤 과학적인 분석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설 연휴 광주·전남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중 상시주차자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8곳 이외에 추가로 376곳의 전통시장 주변이 주차허용 대상지로 포함된다. 광주는 기존 서방시장·남광주시장·1913송정

역시장·무등시장을 비롯한 대인시장·양동시장·말바우시장·송정5일시장·우산매일시장 등이다. 전남은 기존 23곳 이외에 목포 수산종합시장, 여수 교통시장, 순천 역전시장 등 37곳이 추가됐다.

설 연휴에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자치단체, 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 주차를 관리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조례 개정안 후퇴 고층아파트 난립”

광주 시민단체 기자회견

광주 도심 상업지역 내 고층아파트 난립 문제 해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관련 조례 개정안 마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다.

23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역 10여개 시민단체가 24일 오후 광주시장 앞에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후퇴를 우려하며 입장을 밝힌다.

단체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광주시가 도시관리 측면에서 기형적으로 난립하는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년에 걸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건설업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안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속속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로 조망권 침해와 교통혼잡 등 민원이 이어지자 2016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시민단체는 조례 개정안에서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됐다며 반발했다.

기존 조례로는 주거용 90% 미만 주상복합건물을 상업지역에 건립하면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보다 3배가량 높은 600%까지 적용돼 40층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일보 2019 신춘문에 시상식이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열렸다. 시상식 후 김명군 금호주택 대표, 이명선 동화 당선자, 강애영 소설 당선자, 강대선 시 당선자, 김일환 광주일보 편집국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자 시상식 단편소설·시·동화 상패·상금 수여

2019광주일보 신춘문에 시상식이 23일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 5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과 가족, 친지, 역대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자, 광일문화회 회원 그리고 외부 인사로 금호주택 김명군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9년 광주일보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 강애영(여·54)씨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시 부문

당선자 강대선(49) 씨와 동화 부문 당선자 이명선(여·47) 씨에게 상패와 상금 각각 100만원이 수여됐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김일환 편집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실시해 온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라며 “그 동안 광주일보는 신문지상과 자매지 ‘예향’에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을 위해 신작 발간과 문단활동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

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광주일보는 신춘문에 지원뿐만 아니라 호남의 문학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9광주일보 신춘문에는 시 1450편, 소설 164편, 동화 125편 등 세 부문에서 모두 1739편의 응모작이 투고돼 예년과 같은 현황을 보였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494 667 960 969" data-label="Complex-Block">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